
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• 미래청초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2017.4.6.(목) 배포시	배포	2017.4.6(목)	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(02-2100-2666)		담 당 자	박 보 라 사무관 (02-2100-2668)	

제 목 : 서울경제(17.4.6일자) “출발 전부터 IFA 빼그덕” 제하의 기사 관련

< 보도 내용 >

- 서울경제는 2017.4.6.(목) “출발 전부터 IFA ‘빼그덕’”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현재까지 제시된 IF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FA는 펀드, 주가연계증권(ELS)이나 환매조건부채권(RP)·예금만 투자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.”고 보도

< 사실 관계 >

- 투자자문업자가 독립투자자문업자(IFA)인지, IFA가 아닌 일반투자자문업자(FA)인지 여부는 자문대상 상품의 범위 및 자본금 요건과는 무관
- 현행,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요건은 자문대상 상품의 범위에 따라 3억(부동산 관련 자산)·5억(주식·채권·펀드 등 증권, 파생상품, 예금 등)·8억(주식·채권·펀드 등 증권, 파생상품, 예금, 부동산 관련 자산)으로 차등화 되어 있음*

*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등록·인가는 상품의 범위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취급상품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영업의 안정성,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자본금 요건도 높아지는 구조

- 현행 제도에 추가적으로 자문대상 상품의 범위를 펀드, 파생결합증권, 예금 등으로 한정하되 자본금 요건을 1억으로 낮춘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할 예정(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중)

□ IFA는 금융기관과의 겸영·계열관계 금지, 커미션 수취 금지 등의 ‘독립성 요건’을 갖춘 투자자문업자를 의미하며,

⇒ 따라서, 1억·3억·5억·8억 등의 자본금 요건과 무관하게 투자자문업자로서 ‘독립성 요건’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IFA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

< IFA와 FA 비교 >

구분	독립투자자문업자(IFA)	일반 투자자문업자(FA)
형태	법인(주식회사)	법인(주식회사)
자문대상	1억(신설)	펀드, ELS, RP, 예금
	5억(현행)	펀드, ELS, RP, 예금 + 주식, 채권, 파생상품
	8억(현행)	펀드, ELS, RP, 예금 + 주식, 채권, 파생상품 + 부동산 관련 자산
독립성요건	적용	미적용
특정 금융사와 제휴	불가	다수회사와의 제휴가능
커미션 수취	불가	투자자에게 사전고지 후 가능